

생태사회와 불교
연재를 시작하며

연기적 가르침으로 '녹색' 세상 다시 만들자

환경문제는 환경문제가 아니다

최근 인간은 경제성장을 발전의 척도로 생각하며 지금까지 달려왔다. 산업혁명 이후 불과 100여년의 짧은 시간 동안, 이전 수 천년 보다 몇 배의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는 사회로 급성장했다. 그래서 모든 나라는 가장 앞선 선진국으로 대표되는 미국을 몇 십년 노력하면 도달할 것이라는 유토피아적인 미래를 꿈꾸며 노력해왔다. 그러나 1990년을 경과하면서 이러한 미래가 모두 다 같이 누릴 수 있는 꿈이 아니며 이대로 가면 유토피아(Utopia)가 아니라 오히려 파국(Dystopia)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고통스럽게 인정하게 됐다. 성장 사회란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폐기의 사회이며, 이는 오늘날 지구 온난화를 비롯한 각종 위기를 초래하게 만든 원인이라는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된 것이다.

그래서 풍요로운 미래를 꿈꾸던 우리들에게 닥친 이 놀랍고 엄청난 위기의 원인을 복기해보기 시작했다. 위기는 가장 상처받기 쉬운 자연환경의 파괴로 시작됐다. 그런데 더 깊이 들여다보니 이 환경 문제를 그저 복원하고 보존하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실제 깊이 알고 보니 우리의 잘못된 정치, 경제, 민주주의 등의 제도, 아니 그 보다 더 깊이 우리의 가치관, 사상, 생활 양식 등으로 인해 우리들 삶속에 보이지 않게 겹겹이 문제 축적됐고 그것이 악한고리인 환경의 파괴로 나타나게 된 것이라는 점을 깨달은 것이다. 결국 환경문제는 환경문제뿐만 아니라 인식해서는 근원적인 해결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위기를 초래한 생각, 가치, 사상은 무엇인가

점차 심화되고 있는 환경문제는 본래 나눌 수 없는 것을 쪼개고, 가르며,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바라본 인간의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또한 모든 자연을 기본적으로 기계라고 생각하여 자연과 인간 모두 기계 부품의 조립품처럼 생각하기 때문이다. 거기에다 돌고 도는 순환의 시간이 아니라 직선적으로 흘러가면 돌아오지 않는다는 선형적 진보의 관념, 이에 더해 수직상승만이 살길이라는 성장관, 태초부터 종말로 향해간다는 기독교적 직선적 세계관이 바로 오늘날 환경 위기를 초래한 세계관이라 말하고 있다.

환경을 보존하고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일은 단순히 물과 대기, 온난화만의 문제로 풀 수 없다는 것은 조금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모두 절감하는 생각이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담기에 환경이라는 말은 적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를 포괄하는 의미에서 '생태적 사고'라고 굳이 말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생태적 사고란 쪼개고, 가르고, 나눠 분절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서로 긴밀히 의존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사고이다. 모든 것은 각자 촘촘히 그물망처럼 관계돼 있다는 생각, 하나 속에 모두가 있고 모두 안에 하나가 있다는 사고이다. 그러한 세계관과 사상에 입각해서 다시 세계를 바라보니 모두가 달라 보인다. 어제의 것이 어제의 것이 아니게 된 것이다.

그런데 우리에겐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말이다. 맞다. 바로 부처님 연기법(緣起法)이다. 일즉다 다즉일(一即多 多即一), 일미진중합시방(一微塵中悉十方) 등, 우리 불자들에게 너무나 익숙하다. 이미 오래전부터 부처님이 말씀해 오신 연기적 가르침이다. 바로 불교의 근본도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계를 격정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생태적 세계관인 불교의 연기적 세계관으로 돌아가 세상을 그 시각으로 다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한다. 세상과 인류를 구원할 사상과 실천이



2005년 명동 한복판에서 진행된 예코부터의 '빈 그릇 운동' 홍보행사. 불교계 환경운동에서 국민운동으로 발전한 '빈 그릇 운동'은 연기적 사고의 중요성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다.

성장사회의 이분법적 사고 지구위기 초래

불교의 연기적 세계관 생태주의와 일치

'일즉다 다즉일' '그물망 관계' 세상이 주목

6월 20~22일 '리우+20' ... 선진국 절약 강조

불교와 불교 전통속에 있다고 생각하며 세상이 불교를 주목하는 이유다.

생태적사고는 곧 연기적사고, 관계망적 사고

생태주의, 생태라는 말은 바로 관계적 사고, 그물망적 사고이다. 공해(Pollution)이나 '환경(Environment)'이라는 말로는 근본적 가치를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생태', '생태주의(Ecology)'라는 더 깊은 말을 사용한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한 사회정치를 '녹색(Green)'이라는 정치적 표현을 쓴다. 녹색은 당연히 환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녹색'의 안에는 환경과 생태주의를 포함하며, 여기에 더해 분권화, 비폭력, 사회적 책임,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 가난한 사람에 대한 책임, 수많은 생명에 대한 연민과 그들을 위한 '돌봄'이라는 의미가 녹아서 통칭 '녹색'이라 이름 붙인 것이다.

또한 '녹색'은 '적색'으로 표현되는 자본주의, '적색'으로 표현되는 사회주의가 하나같이 물질적 풍요만이 진보라고 생각했고,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폐기의 생산력주의 사회를 만들어 오늘과 같은 위기와 절멸을 초래했다고 생각한다. 청색과 적색이 결국 '그놈이 그놈'이라고 생각해 이를 뛰어넘는다는 의미의 '녹색'이다.

녹색이라 생태적 깨달음의 감을 건넌 뒤 바라보는 시야는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교육문제'를 바라보는 시각도, '복지'를

바라보는 안목도, '통일, 경제, 심리, 문화' 등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해 다른 것이 보인다. 일종의 생태적 의식화라고 할까? 이런 생태적 각성이 없는 사람을 '생태맹'이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생태적 재의식화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동안 우리가 돈의 관점, 인간중심의 관점, 유횐물주의적 관점에서 세계와 자연을 왜곡해 보게 된 것을 바로 보게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시각은 불교가 말하는 연기적 세계관, 부처의 눈으로 본 시각과 일치한다. 어쩌면 과거에는 부처님이나 예수님 등 소수의 사람만이 터득했던 깨달음을, 환경위기를 앞두고 전 지구의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깨달음을 얻게 된 계기가 됐다고 말할 수 있다.

지난 6월 20일~22일까지 브라질 리우에서 1992년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언했던 유엔환경회의가 있던 지 20년을 기념해 '리우+20' 회의가 있었다. 그러나 20년간의 세계적인 노력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이었다. 각 국가들이 역시 자국중심의 경제 우선정책이었고, 환경이나 생태문제는 언제나 뒷전이었던 때문이다. 가난한 나라들은 잘사는 나라를 향해 '가난한 나라가 써야할 자원을 모두 독점하고 미래세대가 써야할 자원까지 빼앗아 현재의 풍요를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들 잘사는 나라들은 '생태부채'를 갖고 있는 것이다. 결국 그 빚을 가난한 나라에 갚아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잘사는 나라들의 소비를 줄이는 문제가 이제는 더 이상 미룰수 없는 의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자발적인 가난, 주체적인 청빈, 소박한 삶이 이제 불자들의 개인적 삶만이 아니고 전세계적으로 강제되는 규범이 되고 있다.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으로 세계가 가까워지고 있는 흐름속에, 불교의 가르침을 몸과 마음으로 따르는 우리가 '공해', '환경' 정도의 인식만으로 멈춰있다면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그래서 이제는 보다 더 깊이 풍부한 '생태와 녹색, 생명'의 세계관에 대한 소고와 안내를 해볼까 한다. 생태주의의 눈으로 바라본 사회, 연기적 관점으로 본 대안사회의 열거를 찾아보고 모색하며, 매주 이를 소개하면서 그림을 그려보려 한다.

유정길 예코부터 前 공동대표, 생태사회연구소 연구원

불교사상 기반한 생태운동 20년

본명은 유길용, 법호는 법운(法雲)이다. 1960년생으로 79년 국민대 건축과를 다니던 중 학생운동에 참여했다. 수배를 받다가 85년 유엔히 절에 들어가 기도 하게 된 것을 인연으로 불교를 처음 접하게 되었다. 그때부터 불교에 깊은 감동을 받고 공부 하게 되었고 1년간 구속된 뒤 감옥에서 나와 86년부터 인연이 된 법륜스님을 비롯한 도반들과 불교사회 활동을 했다. 이후 88년 정토회서 법사로 활동하면서 '한국불교사회교육원'의 사무국장을 맡아 일했다. 그러다 91년 이를 '한국불교환경교육원'으로 개칭해 불교내 최초의 환경운동단체로 활동했다. 2000년 다시 '예코부터'로 명칭을 바꾸고, 사무국장을 거쳐 최근까지 대표로 맡아오면서 불교사상을 기반으로 한 생태주의운동을 20여년간 펼쳤다.

예코부터는 사회환경단체와 활동가들에게 생태주의, 생명운동과 녹색운동의 사상을 위한 교육, 네트워크, 실천의 활동을 해왔다. 그러나 2000년들어 불교의 전통을 기반으로 생태친화적 대안적 생활양식을 전개하는 단계를 바꾸어 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160만명이 넘는 '빈그릇운동' 친생태적 생활양식의 실천을 대사회적 캠페인으로 성공리에 이끌어 왔다.

2001년 9.11테러 이후 전쟁이 끝난 아 예코부터 대표 맡아 녹색운동 전개 프가니스탄에 파견

되어 구호활동과 마을개발협력활동을 카불과 칸다하르, 바미안 등지에서 4년간 활동 했다. 이때 경험한 난민지원, 마을개발, 긴급구호 활동을 통해 가난한 나라의 생태적 지속가능성과 개발협력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이후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정책과 NGO활동 등에 다양하게 참여했다.

아프간 사업을 철수한 뒤에 한국으로 돌아와 정토회의 지원으로 설립된 '평화재단' 기획실장을 맡아 재단 초기활동의 기반을 만드는 일을 했다. 평화재단은 남북화해와 통일문제, 북한의 인도적 지원과 인권문제 등을 50여 편문과 함께 정책개발을 하고, 이를 토대로 사회의식을 계몽하고 여론을 만들며 캠페인 활동을 전개했다.

이후 동북아의 실질적인 평화공동체가 남북문제 해법에 중요한 관건이라는 것을 절감하며 2010년 12월부터 1년간 일본 중앙학술연구소 특별연구원으로 있으면서 일본의 환경단체, 평화단체, 지역운동과 불교단체들과 교류하고 네트워크를 했다.

또한 현재는 예코부터 이사, 평화재단 기획위원으로 생명 생태, 녹색운동의 대안적 비전과 연대를 모색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외에도 서울시 산하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정책분과, 지속가능분과 위원이나 총무역할을 맡기도 했으며, 귀농운동본부 부본부장, 이사, 서울 한살림지도위원, 모심과 살림연구소 이사, 등 역임하며 '생명운동과 생태' '국제개발협력' '남북화해와 통일' '동북아평화네트워크 구축' '불교의 사회화운동과 대안운동' 등을 중심 키워드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금강대학교 개교 10주년 기념
한국 불교 문화와의
동행

금강대학교와 대한불교천태종이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우리 불교문화 공모전

- 불교문화유산답사기
- 한국불교전통문화콘텐츠

여러분의 참신하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우리 불교문화유산을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불교문화유산답사기],
[한국불교전통문화콘텐츠] 공모전에
도전에 보세요.

※ 제작 지원강의를 1차 선발 시 우선 지원한다.

공모전명	한국불교전통문화콘텐츠 공모전	불교문화유산답사기 공모전
목적	불교문화와 IT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결합하여 IT 미디어를 활용한 한국불교문화유산콘텐츠(물리적 제작)를 제공함으로써, IT 산업의 확산과 콘텐츠로 한국불교 전통문화의 가능성과 가치에 대한 인식의 계고를 위한.	중·고교생, 대학생 및 일반인들이 지역의 문화유산을 재인식하는 계기를 제공하고, 그것을 통하여 전통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인식을 제고하기 위함.
주요일정	- 접수기간: 2012년 8월 20일(월) - 1차 심사 및 선발: 2012년 8월 22일(수) - 사전 제작지도회의: 2012년 8월 30일(목) - 제작 기간 및 제출기간: 2012년 8월 31일 - 10월 19일 - 수상작 발표: 2012년 10월 25일(목) - 시상: 2012년 11월 7일(수)	- 접수기간: 2012년 8월 20일(월) - 1차 심사 및 선발: 2012년 8월 22일(수) - 참가 인원과 제출 기한: 2012년 8월 23일 - 10월 19일 - 수상작 발표: 2012년 10월 25일(목) - 시상: 2012년 11월 7일(수)
출품과제 및 선발일 수	- 지정과제: 3팀 - 일반과제: 10팀 ※ 지정과제 및 일반과제 중복 지원 가능 ※ 자세한 사항은 금강대학교 홈페이지 참조	- 불교문화유산 답사기: 50개 팀 ※ 개인지원 가능하며 팀 구성 시 지도교사와 학생으로 팀 구성이 가능함
참가자격	- 전국 대학 및 대학원생(유학생 포함) - 중·고교 교사 및 학생 단체 구성 팀	- 대한승정원 중·고교 및 대학생(유학생 포함)
제작지원경비	- 지정과제: 3팀(각 팀별 300만원) - 일반과제: 10팀(각 팀별 100만원)	- 1인팀: 10만원 - 2인 이상팀: 30만원
시상내용	◎ 대상(1팀): 500만원 ◎ 우수상(2팀): 300만원 X 2팀 = 600만원 ◎ 장려상(3팀): 100만원 X 3팀 = 300만원	◎ 대상(1팀): 300만원 ◎ 특별상(1팀): 200만원 X 1팀 = 200만원 ◎ 우수상(3팀): 100만원 X 3팀 = 300만원 ◎ 장려상(12팀): 30만원 X 12팀 = 360만원

※ 자세한 사항은 금강대학교 홈페이지(www.ggu.ac.kr) 참조

군포교의 전당!
논산훈련소 호국연무사 신축법당 원불 모연

사부대중의 정성과 원력으로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 신축법당 낙성대법회를 봉행했지만, 10억원이 부족하여 완전한 회향을 못하고 있습니다.

매주 일요법회 3500명 참석

불사금 후원 접수 중입니다

원불 / 불사금 후원 계좌번호
농협 301-0063-3042-71
계입은행 325-20-221949
국민은행 477401-01-179603 (예금주: 군종특별교구)
문의안내 02)797-7266,749-8646

불사금 10억 원이 부족합니다. 한번 더 힘을 모아 주십시오!
▶ 호국연무사 신축법당 원불모연 불사
• 후원방향을 대신해 원불을 모십니다.
• 원불봉안 동참금 1인 1불 100만원(분할납부 가능)

대한불교조계종 군종특별교구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83호 국방부 원광사 내
불사문의 / 안내 (02)797-7266,749-8646 홈페이지 www.gunindra.com